

# 절판(絶版)서적의 전자책 제작방법에 따른 효용성 비교 연구

## Applicability of Different E-book Production Methods for Books No Longer in Print

김소라\*, 김동언\*\*

(주)악어스캔\*,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So-Ra Kim(gagziyo@gmail.com)\*, Dong-Eon Kim(senam406@khu.ac.kr)\*\*

### 요약

이 논문은 한 권의 절판도서를 선정해 ePub과 PDF로 실제 제작을 해봄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절판도서를 전자책으로 복간(復刊)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PDF 전자책은 텍스트 원본이 없는 경우가 많은 2000년대 이전의 절판서적과 레이아웃이 복잡하여 ePub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종이책을 전자화하는데 경제적 효용성이 있으며, 옛날 책만이 가진 감성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문화적인 가치도 있었다. PDF 전자책 출간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도서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절판도서에 대한 적합한 저작권 이익의 배분과 유통플랫폼의 다양화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자책 출간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책 제작을 망설이는 영세한 출판사나 저작자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자책 출간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시물레이션 역할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 중심어 : | 절판도서 | 재출간 | 전자책 | PDF |

### Abstract

This thesis will select one of the books that went out of print, and republish it using the ePub and PDF format to observe the effective and economic method to republish it as an e-book. Conclusively, e-book in PDF format was advantageous over ePub production. The ePub has limitations of electronically publishing the books went out of print prior to 21st century when storing the original text was not common, as well as book with complex layouts. The PDF format was able to capture and recreate the sensitivity that can only be presented by vintage books, also adding to the cultural value. To publish PDF e-books, the foremost requirement is to prepare a standardized system that allows comprehensive browsing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book, and also creating an environment for copyrighted publishers to more actively publish e-books by diversifying the distribution platforms and properly allocating the profit generated by use of the copyright. This thesis provides a simulation of e-book publications, for small and medium size publishers and writers who are hesitant to publish e-books, to take more aggressive approach in entering the business.

■ keyword : | An Out of Print Book | Republish | E-book | PDF |

\* 이 논문은 김소라의 2016년 2월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접수일자 : 2017년 02월 02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3월 22일

수정일자 : 2017년 03월 13일

교신저자 : 김동언, e-mail : senam406@khu.ac.kr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 2015년 한 해 납본된 도서를 중심으로 발행 종수와 부수를 집계한 결과 발행된 신간의 종수와 부수는 각각 4만 5,213종, 8,501만 8,354부인 것으로 나타났다[1]. 이는 출협이 대행하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납본자료를 근거로 집계한 통계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정기간행물과 교과서는 제외됐다.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도서의 수는 이 집계를 훨씬 상회하는 부수가 된다는 뜻이다. 해마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도서들 중에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독자들과 출판업자들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우수한 콘텐츠가 인정되어 각 종 수상 영예를 안기도 하고 소장가들의 관심과 도서관에 영구 보존되는 출판의 성과를 얻기도 한다. 책은 시, 공간을 초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사상과 가치에 대한 누적된 지적 체계를 집적시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출간되자마자 서점의 진열대에서 외면을 받거나 곧바로 절판이 되어 도서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책들은 저마다의 타고난 운명에 따라 결국에는 절판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르게 된다. 책 한권의 가치가 단순히 출간과 절판의 과정에 순응하는 산업의 매개물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더욱이 뉴미디어와 디지털 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책의 위상을 급속도로 추락시키고 있다. 컴퓨터, 모바일, 영상 매체 등의 확산과 일상화는 더 이상 종이 위에 인쇄된 책의 효용성에 대해 의심해야 하는 지점까지 와있다. 이미 디지털로 변환되어 전자기기 등으로 읽거나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전자책(e-book)은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었다. 2015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출판문화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는 1,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출판사, 출판유통사의 매출시장 7조 8,000억 규모에 비해 미미한 규모지만 매년 전자책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2]. 급변하는 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그동안 명성을 누렸던 거대한 출판사도 하루아침에 출판시장에서 사라지는 현실이 되었다. 종이책을 팔던 비

즈니스는 정보와 지식이라는 콘텐츠 비즈니스로 이행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산업이 콘텐츠 산업으로써 영역 이동을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절판 도서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지만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을 투사하면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바다이고 보고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종이책 시장의 불황과 급변하는 출판 산업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절판 도서의 콘텐츠로서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전자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연결하여 모색하고, 실증적으로 절판 도서를 전자책으로 제작, 비교하여 얻은 결과를 향후 절판 도서를 활용한 전자책 제작의 정책적, 전략적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시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4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절판도서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하여 절판 도서가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원천 자료로서의 의미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절판도서의 전자책 제작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자책 시장의 문제점과 절판도서의 전자책 제작시 장점과 주요 동향을 살펴본다. 셋째, 절판 도서를 선정하여 실제로 전자책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하여 각각의 장, 단점과 특징을 도출한다. 넷째, 이를 토대로 절판 도서의 전자책 제작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마무리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진행한다. 첫째, 서적, 학술 논문, 정부와 기관 연구소의 연구 보고서 등의 문헌 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과 학술적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인터넷과 언론 보도 내용 등 기타 자료를 통해 현재 절판도서의 전자책 제작 현황과 주요 동향을 파악한다. 셋째, 절판도서를 선정하여 ePub과 PDF로 실제 제작을 해봄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절판 도서를 전자책으로 복간(復刊)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실증적 방법을 활용한다. 넷째,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시사점과 제안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절판 도서의 제작, 비교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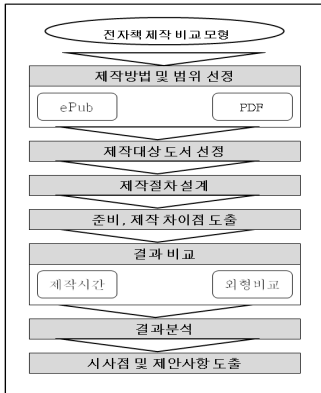


그림 1. 전자책 제작 비교 모형

### 3. 도서의 선정과 제작 방법

본 논문에서는 전자책 제작의 경우, 절판(絶版)서적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전자화 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입난이도가 높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애플의 형태는 제외하며, 현재 주로 전자책으로 제작하고 있는 표준방식인 ePub와 스캔을 통한 PDF 전자책만을 비교해 다루기로 한다. 제작 대상의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 ePub과 PDF로 제작 시, 각각의 기능상 특징과 한계를 고려하고, 제작 후 결과물이 서로 잘 대조되도록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두었다.

첫째, 세로쓰기로 되어 있는 책을 선정할 것. ePub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로쓰기 형태로 되어 있고, 세로쓰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세로쓰기로 되어 있는 오래된 절판서적을 가로쓰기 형태의 ePub으로 제작하여 재배열된 결과물을 PDF 제작 방식과 비교한다.

둘째, 절판 도서가 갖는 시간과 역사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30년이 지난 종이책 중에서 선정하되, 종이의 색이 변질된 것으로 할 것. PDF는 전자책 출판에서 가장 처음으로 고려되었던 파일 형식이었지만 용량문제로 인해 ePub이라는 새로운 포맷을 표준 전자책 형식으로 정한 바 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를 스캔하여 PDF 전자책으로 만들 때, 스캐너는 변색된 종이를 하나의 큰 컬러이미지로 인식하여 그렇지 않은 흰 종이를 스캔하는 것보다 용량이 더 커지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변색된 종이책을 스캔하여 PDF 전자책으로 만들

때, 용량상의 큰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변색된 종이책을 비교 연구 대상의 기준으로 하였다.

셋째, 표지디자인, 서체디자인, 삽화, 맞춤법, 용어 등 시대적인 문화차이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담긴 책을 선정할 것. 책 한권을 출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미적 가치를 일관성 있게 재구성한 요소들은 당시 문학에 대한 시대적·문화적 감수성을 느낄 수 있다[3].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무시되고 단순히 내용의 텍스트(text)만 옮기는 작업으로 ePub으로 전자화했을 때, 인쇄술의 모든 요소를 그대로 옮긴 PDF 전자책과는 감성적인 측면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여 선정된 책은 1979년 삼문사에서 발간된 ‘웃음백과 코메디 대행진’이라는 책을 선정하였다. 다양한 절판 도서를 표본으로 제작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으나 위의 기준으로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Pub 제작 시 전자책의 내용 구성은 표지, 판권, 목차, 본문, 메타데이터 크게 5가지로 나뉜다[4]. 본 논문에서는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ePub과 PDF로 전자책을 만들었을 때의 큰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목적이기에 전자책의 다섯 가지 구성을 포함하되 전부가 아닌 각 구성의 일부만을 선정하여 제작하기로 하였다.

단말기는 용량이 큰 PDF를 지원할 수 없는 e-ink 방식의 킨들(kindle)은 제외하고, 화면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두 곳에 동일한 iOS로 구동하는 iPhone과 iPad로 구현해보도록 하였다. 기종은 iPhone5S(4인치)와 iPad2(9.7인치)이다.

## II. 절판도서의 이해와 가치

### 1. 절판도서의 이해

절판(絶版, be out of print)이란 출판사(제작사)가 판권을 포기한 경우로 재출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품절(品切, out of stock, be sold out)이란 출판사(제작사)가 판권은 보유하고 있으나, 재출간일시가

1. 1979년 삼문사에서 발간한 책으로 김인철 저자의 총 264쪽, 당시 정가 1,500원이다. 현재 중고 헌책방에서 9,000~10,000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

불확실한 상품의 상태를 말한다[5].

책이 절판 되는 이유는 출판사가 폐업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연평균 270여종의 책을 펴내던 고려원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 부도가 났고, 2만여종의 문학·인문·실용서적이 일제히 절판됐다. 2004년 고려원북스가 고려원의 재고와 판권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영업을 재개했는데 그 사이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등은 다른 출판사에서 재출간되었다. 작가가 손수 절판을 선언하기도 하는데 황석영은 2012년 소설 ‘여울물소리’를 펴낸 출판사 ‘자음과 모음’이 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사재기 문제로 논란을 빚자 직접 책의 출간을 중단했다. 이 책은 2014년 11월 출판사 창비에서 복간됐다. 법정스님은 2010년 작고하면서 ‘무소유’ 등 저서 20여종을 모두 절판시키라는 유언을 남겼다. 1988년 출간된 장정일의 처녀작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도 작가 요청으로 초판 1쇄를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 책은 작가가 유명세를 타면서 웃돈을 잔뜩 얻어도 못하는 ‘회귀본’이 됐다. 정부에서 ‘금서’로 지정하는 바람에 절판된 책도 있다. 주로 만화나 로맨스 소설이지만 마르키 드 사드의 ‘소돔 120일’ 같은 고전문학도 이렇게 사라졌다. 이 책은 교황청 금서로 2세기 가까이 묶였다가 1957년 축쇄가 풀렸고 국내에선 1990년, 2000년에 각각 출판됐지만 금서로 지정되며 절판됐다. 2012년 동서문화사가 재출간한 책도 유통이 금지되는 ‘유해간행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가 독자들의 항의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돼 시중에 풀렸다[6].

그 이외에도 판매가 부진하거나 판권이 만료되었을 때, 참고서의 경우 개편으로 인하여 기존판이 쓸모없어지게 된 경우 절판하고 개정판 출간을 한다. 컴퓨터 관련 서적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절판되기도 한다.

절판본을 구하기 위한 방법은 서점 도서목록에 절판으로 표기되어도 출판사에는 소량의 재고가 남아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중고마켓이나 오프라인 헌책방을 뒤지는 일이다. 절판본은 주로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데 회귀책의 경우, 프리미엄이 붙어 출간 당시 원가의 10배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 2. 절판도서의 가치

### 2.1 절판도서의 상업적 가치

절판본의 이면에는 책의 수명이 짧은 우리 출판 생태계의 고질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내실 있는 출판사는 적고 시장이 어렵다 보니 한두 권 출판해보고 즉각적 수요가 없으면 절판시키는 경우가 많다. 소위 ‘팔리는 책’에만 기획과 출간이 집중되면서 외국에 비해 문학·인문·학술서적이 쉽게 절판되고 있어 도서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결국 출간된 책에 담겨진 콘텐츠의 가치와 효용성보다는 시장의 환경과 유통구조에 한 권의 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시장에 남아 유통되고 있는 책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오랜 시간이 누적되다 보면 천문학적인 절판 도서가 사장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절판 도서에 담긴 책의 가치를 상업적 가치와 연결시키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움직임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2004년 12월 구글은 오프라인 정보 검색을 온라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반인들에게 지식에 대한 더 많은 접근기회를 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세계 5대 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스캔하고 디지털화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무려 1,200만 권에 달하는 구글의 야심찬 이 ‘구글 북스 프로젝트’는 즉각 ‘구글 같은 대형 사업자가 책에 대한 정보를 스캔한다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는 논리로 2005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출판협회와 작가협회의 집단 소송을 불러왔다. 소송 7년만인 2012년 10월, 출판사는 구글과 합의했고, 1년이 지난 11월14일 미국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고 ‘공정이용’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7].

향후 절판된 책과 서면자료에 대한 온라인상의 출판권과 이에 따른 막대한 이익 창출의 중요한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 2.2 콘텐츠 산업의 원천으로서 가치

미국의 월트디즈니 사가 ‘World Marketing’이란 명명 아래 이루어진, 지구 곳곳의 설화문학을 전 세계인의 보편적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제작·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듯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대중의 수요와

학계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나의 콘텐츠가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 이후 종이로 된 활자 매체를 벗어나 서사를 기반으로 발전해 오면서 '원소스멀티유즈(OSMU)'가 되어 대규모 산업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8]. 특히, 매체가 다양한 진화과정을 거쳐 멀티미디어 시대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인쇄매체로 소통되던 문학이 여러 매체의 콘텐츠로 변용되면서,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등의 종합적이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표현과 소통 방식을 지닌 뉴미디어 시대에 접어든 까닭이다[9]. 박기수[10]는 문학이 만화, 영화, 뮤지컬과 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의 원천소스가 되어 다른 매체를 통해 문화콘텐츠로 제공될 때 원형이야기를 성공적으로 담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임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OSMU로 활용할 원천콘텐츠를 새롭게 창작하여 개발하는 데에는 성공의 가능성과 비용의 문제가 늘 수반된다는 것이다. 효과와 효율의 문제는 산업화 가능성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이미 잘 알려진 콘텐츠, 혹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새롭게 각색했을 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원천콘텐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 원천콘텐츠는 인류 역사와 함께 이미 오랜 세월 책 속에 담겨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2.3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서의 가치

2015년도 KPIPA 출판산업 동향에 따르면 2015년 발행실적이 있는 출판사 수는 6,414개사이고, 총 70,091종이 발행되었다고 한다.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1년 동안 책을 한권도 안 읽은 사람이 35%나 된다고 한다.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출판되는 책은 해마다 쏟아지는데 독자와 연결되는 책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독서문화의 확산과 출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환경에 맞춘 독서자료 및 독서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매체 및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대중음악은 CD나 테이프가 아닌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 들을 수 있는 파일형태로 판매된다. 멜론, 지니뮤직, 네이버 뮤직 등이 음원파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

면서 음원 소비자들은 한 달에 일정 요금을 내고 음악을 무제한 재생할 수 있게 되었다. 별도의 소장할 가치나 기념이 될 만한 음반이 아니면 이동통신업체와 연계된 스트리밍 서비스 형태로 음악에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출판계에서는 전자책 구독(Subscription) 서비스가 화제로 떠올랐다. 음악 분야에서의 경우처럼 책도 특별히 소장하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읽는 목적을 충족시키기에는 전자책이 기능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음반 시장에서 이미 절판된 명반들을 저비용으로 시장에 등장시켜 음악 소비의 촉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장은수[11]는 출판 산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독자들의 이탈을 지적하면서, 독자들에게 읽기 습관을 들이지 않고는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그 방법으로 비독자를 독자로, 소독자를 다독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출판시장의 예를 들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책을 읽는데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중고서적 시장의 높은 매출 성장률은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성장세에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유통사의 변형된 저가 판매 전략이 있었지만, 절판 도서가 독자층의 잠재 수요를 수면으로 이끌어 낸 점도 주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절판도서의 전자책 제작 주요 동향과 장점

2015 출판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자책 시장의 유통사 응답자들은 향후 전자책 출판 유통업과 관련하여 발전 가능성을 낙관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나, 전자책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을 콘텐츠의 양적 부족 24.0%, 콘텐츠의 질적 미흡 20.0%, 독자층 부족과 구매력 미흡 20.0%, 표준화(콘텐츠 포맷/디바이스 호환) 미흡 12.0%로 답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출판 시장에서 변화의 모습으로 확인된다. 절판도서를 전자책으로 복간하여 국내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와 독자층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북큐브네트워크가 절판 도서를 전자책으로 복간하기로 복사전송권협회와 합의했다는 보도가 2011년 4월8일 나왔다. 2012년에는 전자문서술루션 및 PDF술루션

전문기업 네스지오도 전자문서 생성 전문업체 티미스 솔루션즈와 컨소시엄을 구성,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절판 도서의 전자책 복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절판 도서를 전자책으로 복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네스지오는 우선 국립중앙도서관 설립 이후 단 1회라도 대출된 기록을 갖고 있는 절판 도서 5만권을 선정해 전자책으로 복간한다. 저자, 출판사 등과 전자책 복간에 따른 수익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해 권리를 갖고 있는 저자 및 출판사에 분배된다. 2014년에는 주문형출판 전문기업인 ㈜복랩도 자사의 첨단 디지털 제작 기술을 이용해 절판된 도서를 복간하는 시장에 뛰어들었다. 복랩이 창사 10주년을 맞아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복간을 원하는 저자나 출판사가 해당도서를 우편으로 보내 주면 이를 검토한 뒤 복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에 대해 자사 비용으로 복간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복랩은 복간작업을 위해 종이책 텍스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문자인식기술(OCR)을 비롯, 과잉제고와 품질을 방지하기 위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실시간 제작하는 주문형출판(POD) 기술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총망라하게 된다.

교보문고도 품질 및 절판된 도서를 전자책으로 복간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품질 및 절판된 도서를 전자책으로 제작시의 장점을 다음의 4가지로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12]. 첫째, 기존 종이책 출판에 비하여 원자재비, 제판비, 인쇄비, 제본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내용의 개정이나 새로운 정보의 업데이트가 언제나 가능해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반품과 재고 관리, 물류비용 등 유통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절판된 도서를 전자책으로 복간하여 새로운 매출 향상이 가능하다. 넷째,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전자책의 특성은 다양해진 고객 니즈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절판도서의 전자책 복간사업은 출판사, 유통사, 독자층이 절판도서의 가치를 전자책이라는 시대 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III. 전자책 제작의 이해

#### 1. 전자책 포맷의 종류와 장·단점

PDF는 어도비(adobe)에서 개발한 디지털포맷으로 컴퓨터 환경에 관계없이 같은 표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현재 가장 범용성 높은 문서표준으로 세계표준 ISO에서도 인정된 포맷이다[13]. 하지만 스펙이 업데이트 될수록 파일 사이즈가 커져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는 전송과 표현 속도에 제약이 되었고, 파일의 외부 링크나 멀티미디어 요소를 넣는데도 상당한 제약이 있어 전자책이 가진 두드러진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요소를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전자책 서비스는 PDF가 우선으로 고려되었지만, 결국 애플과 어도비, 소니 등의 유수 기업들이 주축이 된 IDPF(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라는 단체가 구성되고, 전자책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포맷인 ePub(electronic publication) 규약을 내놓게 된다.

즉, PDF가 전자문서의 포맷이면서 종이책을 기반으로 특화·발전하고 있는 포맷이라면, ePub은 태생부터 전자책을 위해 특화된 포맷이라고 할 수 있다[14].

ePub(electronic publication)은 전 세계 어떤 단말기에서도 표현 될 수 있도록 전자책 출판 표준을 위해 제정한 규격이라고 할 수 있다. ePub의 가장 큰 특징은 리플로우(reflow)기능이다[15]. 각 디바이스의 화면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줄을 바꾸어 정렬하는 기능이며, 그 결과 하나의 동일한 ePub 전자책은 각 디바이스에서 표현될 때마다 페이지 수와 화면에서의 줄 수가 변화무쌍해진다. 이 리플로우 기능으로 기존의 PDF는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볼 때 확대를 여러 번 해야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반면 ePub에서는 별도의 조작 없이 원하는 폰트 사이즈로 쾌적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기능으로 인해 iPad처럼 큰 화면의 디바이스에서는 300페이지였던 전자책이, iPhone처럼 작은 화면에서는 500~700페이지로 변경 될 수 있어 페이지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표와 그림 같은 콘텐츠를 제공할 때에는 이런 사양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제

작해야 한다.

ePub의 또 하나의 특징은 ePub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되는 기술인 HTML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웹 언어를 아는 개발자들은 ePub을 만드는데 새로운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며, 표현력도 굉장히 다양해 종이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멀티미디어, 양방향통신, 3D, 가상체험, 가상현실,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는 브라우저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는데, 사소한 사양 차이가 표시 스타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독자들은 불편함이나 버그를 경험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앱북(app book)은 응용 프로그램을 뜻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책이란 뜻의 '북'을 합친 용어로, 스마트폰 앱처럼 특정 디바이스 전용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책을 뜻한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2010년 앱북 개발사가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 e-book과 구분하기 위해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앱북은 기존 전자책이 삽화나 사진 등의 이미지만을 제공하던 것에서 벗어나, 멀티미디어 파일을 삽입해 동영상, 음악, 효과음, 슬라이드 이미지, 웹페이지, 지도, SNS 등을 삽입하거나 연결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동적인 정보도 삽입해 제공할 수 있으며, 움직임이 있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고 터치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기능도 넣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편집자의 능력이나 저작물의 기능에 따라 구현하고자 하는 바를 최대한 이루어낼 수 있다. 앱북은 기존의 종이책은 절대로 흉내 낼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Objective-C라는 프로그래밍 기술을 습득해야만 하므로 제작하기엔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OS별로 별도의 앱북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출판 후에도 업데이트와 새로운 플랫폼에서 구동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여 유지 및 관리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 2. 전자책 유통방법과 환경

전자책은 무형의 콘텐츠로 유통되면서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기술로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을 장착한다[16]. 하지만 유통

업체마다 다른 DRM을 적용하다 보니 독자에게 불편함이 크다. DRM에는 기술적 보호조치 의미 외에 시장지배력 문제도 있는데 콘텐츠가 어떻게 유통되고 매출은 얼마인지, 몇 개 카피가 이루어지는지를 공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자책 업체로서는 판매 정보가 담긴 DRM을 공용으로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전자책 유통과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전까진 출판사로서 전자책을 적극적으로 출간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17]. 그러한 이유인지 국내 전자책 출판 현황은 미비하다. 2011년 한국출판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 출판 산업의 디지털 생태계 현황 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자책 제작에 참여중인 출판사는 전체 출판사의 약 14% 정도로 집계되었으며 전자책 미발행 출판사 중 2012년 전자책 제작 의향을 밝힌 곳은 11.8%에 불과했다. 전자책 제작 주체와 형태에 대해선 '외부 유통사'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62%로 가장 많고, '외부 제작사'에 의뢰하는 경우는 20%, 출판사가 '직접 제작'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대다수의 출판사들이 디지털 출판물 제작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종이책 제작 파일을 전자책 유통사에 단순히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자는 서체를 통해 힘을 갖는다. 그러나 ePub 제작 현실에서는 서체 저작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체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 애로사항이 많다. 폰트(글씨체) 업체들이 전자책 업계에 폰트 저작권을 요구하며 저작권 분쟁으로 번진 사례가 수도룩하다[18]. 하지만 대다수의 전자책 콘텐츠 업체는 극도로 영세해 서체 저작권문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전자책 산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업체가 지나치게 저작권 침해만을 내세우며 무리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1년 12월 한국출판인회의는 문화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전자책 전용 서체를 개발하여 출판사에 무료 배포하였지만 서체 배포 이후 버그 등 하자에 대한 보수 문제와 특수문자나 기호의 개발이 미흡하여 업그레이드된 서체 개발이 과제로 남게 되었다[19].

#### IV. 전자책 제작 절차

ePub 전자책 제작을 위해선 책 내용이 담긴 텍스트(text)파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옛날 책의 경우 워드(word)파일이 있다는 건 만무하다. 따라서 종이책을 보고 하나하나 타이핑을 쳐서 워드(word)파일을 새롭게 만들거나, 또는 종이책 원본을 스캔하여 OCR작업을 한 후 인식된 워드(word)파일을 종이책 원본과 비교하며 텍스트(text)를 수정하여 만드는 방식이 있다.

본 논문에서 선정한 책은 36년이 넘는 구간(舊刊)서적이라 인쇄상태도 좋지 않고, 한글과 한자와 혼용되어 있고, 또한 세로쓰기로 되어 있어 90%이상으로 알려진 OCR 인식율이 이 경우엔 현저히 떨어져 종이책을 보고 내용을 타이핑하는 방식으로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총 20장의 페이지를 워드(word)파일로 만들었고, 삽화는 스캔하여 해당부분만 캡처하는 방법으로 전자책에 삽입할 콘텐츠를 준비하였다. ePub 전자책 제작 프로그램 시길(sigil)을 이용해 ePub 전자책을 제작한다.

PDF 전자책은 가지고 있는 종이책을 스캔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다. 표지는 두꺼워 평판(flatbed)스캐너로, 내지는 자동급지(ADF)스캐너를 이용한다. 스캐너는 PDF로 설정하여 스캔이 완료되면 어도비 아크로벳에서 표지와 내지를 합치기 하여 한 파일로 만든 후, 책 제목으로 파일명을 변경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PDF책을 제작한다. 각각의 제작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구분	ePub	PDF
제작절차	시길(sigil) 다운로드 받기	재단하기
	워드(word)로 내용 변환	
	작성 파일 HTML 문서 변환	PDF 포맷으로 스캔하기
	시길(sigil)로 파일 읽어들이기	
	제목, 저자, 언어 설정	필요에 따라 OCR 추가 작업
	챕터 나누기	
	이미지 넣기	
	목차 설정하기	PDF 파일을 디바이스에 넣기
ePub 형식으로 저장하기		
ePub 파일 디바이스에 넣기		

그림 2. 제작방법 및 절차

#### V. 결과물 비교

##### 1. 제작절차 및 제작시간 비교

20페이지를 기준으로 PDF로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 30초', ePub으로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 8분'으로 약 12배 차이가 났으며, ePub의 콘텐츠가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제작시간으로만 비교한다면 PDF가 '10분 30초', ePub이 '28분'으로 약 2.6배 차이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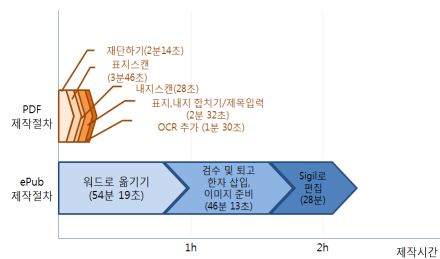


그림 3. 제작절차에 따른 제작 시간 비교

##### 2. 준비과정 및 제작과정에서의 주요 차이점

하나의 종이책을 PDF와 ePub으로 제작하는 준비과정과 제작과정에서 나타나는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ePub은 반드시 워드(word)파일 등 콘텐츠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ePub을 제작하기 위해선 시길(sigil)등 ePub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셋째, ePub 파일을 만들기 위해선 표지-판권-목차-본문-메타데이터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과 특히, 본문제작시 챕터 나누기라는 새로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효율적인 PDF 제작을 위해선 재단기의 사용으로 원본을 훼손시킬 수 밖에 없다. 다섯째, 대부분 스캔 후 PDF 전자책으로 만들고 OCR을 추가하면 90%이상의 인식률을 보이나 실험 대상으로 선정한 도서의 경우, 세로쓰기와 글씨가 작은 점들이 영향이 되어 10%이하의 인식률도 나오지 않아 검색용으로 적합하기 않은 결과물이 되었다는 점이다.

##### 3. 디바이스 설치 후, 결과물의 외형적 비교

제작이 완성된 ePub과 PDF를 iPad와 iPhone에 넣은



후 외형을 비교하였다. 비교항목은 표지, 목차, 서체디자인과 방향, 삽화의 위치의 변화, 배경색, 기울기, 디바이스를 가로형태로 놓았을 때의 레이아웃 변화, 용량 등이 있었다. 큰 특징으로는 옛날 책 원본은 명조계열과 고딕계열의 2가지 서체가 사용되었지만, ePub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무료 폰트만 사용하였기에 한 가지의 서체로 표현되고, 원본에서는 세로쓰기로 되어 있지만, ePub에서는 세로쓰기가 지원되고 있지 않아 가로쓰기로 재배열 된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ePub은 텍스트(text) 파일을 따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깔끔하게 정렬된 모습이지만 PDF는 인쇄 당시의 고유한 서체와 느낌을 가지고 있는 대신, 기울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는 컬러그림으로 인식되어 4배 이상의 용량 차이를 가져왔다.

표 1. 디바이스 설치 후, ePub과 PDF의 비교

항목	ePub	PDF
표지	깔끔한 텍스트(text)로 변환	옛날 책 그대로의 책 표지
목차	쪽수가 나타나지 않으며, 터치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3단 세로쓰기 유지
서체 디자인	일률적인 깔끔한 형태로 가로 열	옛날 책 그대로의 2가지 이상의 서체로 세로 열
삽화위치 레이아웃	삽화의 위치가 화면에 따라 이동	판형 그대로 삽화위치 유지
배경색	깔끔한 미색	누렇게 변색된 종이 색
기울기	기울기 없음	인쇄상태에 따라 기울어진 곳이 있음
가로로 보기 변화	양쪽보기 가능, 리플로우(reflow)기능으로 글 재배열 변화됨	판형이 유지된 채 작게 보임
iPad, iPhone 디바이스 설치 비교	화면의 크기변화에도 리플로우(reflow)기능으로 보는데 지장 없음, 삽화의 위치는 변화가 심함	iPad의 경우 PDF책을 볼 때, 양쪽에 남는 공간이 생기며, iPhone의 경우 세로로 길게 보면 볼만 하지만 가로 보기시 시력에 따라 확대가 필요
용량	1,133 KB	4,837 K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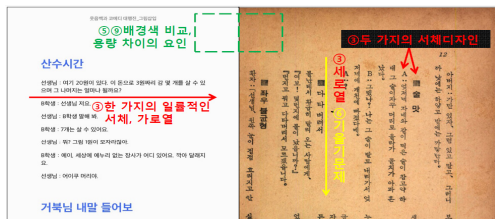


그림 4. 일부 항목들의 비교 그림



그림 5. PDF의 고정형 레이아웃과 ePub의 리플로우(reflow)기능

## VI. 결론

### 1. 결과 요약

연구를 통해 첫째, 절판 도서에 대한 학술적, 상업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여 세계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도 새롭게 조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콘텐츠 산업의 원천콘텐츠로서 절판 도서의 활용 가능성 역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 특히, 위축된 출판 시장의 활성화와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절판 도서의 전자책 출간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출판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둘째, 절판 도서의 전자책 제작은 비용의 절감, 매출 향상, 독자 층의 니즈에 부합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 향후 전자책 시장 활성화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자책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콘텐츠의 양적, 질적 부족과 디지털 독서문화 확산에 절판도서의 전자책 제작은 중요한 돌파구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과 전송권 문제와 관련하여, 복사전송권협회와 절판도서를 전자책으로 제작, 판매하기 위한 기업들과의 협약의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성도 기대된다. 셋째, 절판 도서를 선정하여 실제로 전자책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하여 각각의 장, 단점과 특징을 도출한내용은 다음과 같다.

PDF 전자책은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누구나 제작할 수 있어 전문업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고, 그림이나 표

등이 많아 ePub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책을 고정형 레이아웃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점, 옛날 책만이 가진 감성을 재현하고, 구하기 어려운 희귀도서를 재출간할 수 있는 장점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장점을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출판업계의 전략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① 더 이상 종이책으로 출간예정인 없는 절판서적
- ② 수익성은 없지만 문화적 가치가 있는 서적
- ③ 텍스트 원본이 없는 종이책
- ④ 레이아웃이 복잡한 종이책
- ⑤ 전자책을 출판하고자 하는 영세 출판사나 저작자들의 방향이 제시된다.

결과적으로 텍스트 원본이 없는 경우가 많은 2000년대 이전의 절판서적과 레이아웃이 복잡하여 ePub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종이책을 전자화하는데 경제적 효용성이 있어 소규모 출판사나 저작자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 2. 시사점 및 논의 사항

본 연구는 절판 도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하면서 ePub과 PDF 두 가지 방식만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방식의 전자책 제작 방식과 장, 단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연구의 진행 목적상 절판 도서의 일부만을 제작 모형에 다루어 전 과정에 따른 실제 비용 산출을 할 수 없었던 점은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질적 완성을 위해 도서 품질·절판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절판 도서의 현황과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점과 절판 도서와 관련한 학술적 연구 자료, 정부 공식 연구 보고서 또한 거의 없어 학술적 접근에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점들을 찾았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절판 도서의 가치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소비자 중심의 시대 환경에서 새롭게 접근하여 절판 도서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절판 도서의 상업적 가치, 콘텐츠산업의 원천 콘텐츠로서의 활용 가능성, 출판 산업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서의 가치와 가능성을 각각 구분하여 제시한 점. 둘째, 옛날 책 한 권을 직접 ePub과

PDF로 제작해 보면서 PDF책이 전자책을 출판함에 있어 제작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셋째, 비교한 결과물을 통해 PDF 전자책은 그 당시 인쇄술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어 시장성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넷째, 구간서적의 PDF 전자책은 종이라는 재료가 가진 보관상의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전자책 제작을 망설이는 영세한 출판사나 저작자가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전자책 출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자책 출간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역할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절판 도서의 전자책 제작의 활성화를 통한 출판업계의 발전과 독서 문화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논의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절판 서적을 PDF 전자책으로 복간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우선, 절판서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이다. 도서 품질·절판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면 독자나 서점에 유용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에서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디지털로 콘텐츠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저작권 만료 여부를 알려주는 용도에 적합하지만, 절판이나 품질에 대한 도서 검색이 가능하지는 않다. 합리적인 저작권 이익 배분을 위해서라도 도서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실시간 전송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대형 유통사와 도서관의 공동 작업을 통해 도서 관리에 필요한 DB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저작자와 출판사 입장에서도 저작권과 관련한 인세에 대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 보다 건전한 유통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고, 판매율·재고율·도서 이용률 등을 통해 재출판에 대한 고민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유통환경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 할지라도 배타적 입장의 이익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절판된 좋은 책들은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사장될 수밖에 없다[20]. 디

지털 출판환경을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하기보다는 전자책 출판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열린 마음으로 조율과 지혜로운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유통 플랫폼의 다양화이다. PDF 출판은 저작권을 가진 저작자나 출판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판권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출판사가 개별적인 유통 플랫폼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최근 국내 출판·유통업체들에 'DRM 프리(free)'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 IT전문 출판사 오라일리는 지난해 출판한 대부분 서적에서 DRM을 빼고 자체 사이트에서 도서를 팔기 시작하니 어떤 공간에서 팔든 기술적 문제에 구애받지 않았고, 전자책과 종이책 매출이 동시에 오르는 성과도 봤다. 사용하는 기기는 자꾸 바뀌는데 그때마다 DRM을 인증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했기 때문이다[21]. 음원이나 영화에 굿 다운로드가 보편화된 사례를 출판업계에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끝으로, PDF 전자책 출판을 두고 출판사나 저작자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보다 친근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구매시 독자의 개인정보 페이지를 삽입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유출시 치명적인 정보가 아닌 구매자의 이름, 주소, 이메일주소 등을 전자책 다운로드시 자동 삽입함으로써 독자들에게도 PDF책에 대한 소유의 권리와 책임을 준다면 저작권 보호에 대해 스스로 관리 감독해 나가면서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이다 [22]. 또한 2차적인 보호 방법으로 PDF뷰어인 아크로벳에서 파일에 대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개인의 의사에 따라 범용적이고 친근한 보호조치로서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http://www.kpa21.or.kr/>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5년도 하반기 KPI PA 출판산업 동향, 2016.

[3] 로베르 에스가르베, 책의 혁명, 普成社, 1985.  
 [4] 김정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 디자인 연구 : 전자책(e-book)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5] <http://www.navibook.co.kr/>  
 [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56622>  
 [7]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글로벌 저작권 보호, 여름호, 2012.  
 [8] 이용준, 디지털 혁명과 인쇄 매체,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8.  
 [9] 정경숙, 전자책 단말기(Device)를 중심으로 한 전자책의 현황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0] 박기수, "One Source Multi Use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전환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44집, pp.155-176, 2011.  
 [11] 장은수, 출판의 미래, 오르트, 2016.  
 [12] <http://www.kyobobook.co.kr/contents/publisher/Soldout.jsp>  
 [13] 문현숙, "EPUB3.0 고정형 레이아웃 전자책 구현,"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p.105-112, 2015.  
 [14] 이광희, ePub 전자책 제작 테크닉, 비엘북스, 2012.  
 [15] 박상욱, 전자책 제작활동을 통한 교과학습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6] 성대훈, 국내 전자책 서비스업체의 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7] 장기영, 책의 미래, 푸른영토, 2011.  
 [18] <http://www.etnews.com/201312240434>  
 [19] 조미현, 한국전자출판을 말한다: 전자출판의 저작권 이슈,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13.  
 [20] 조대웅, 한국 전자출판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1]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814115001](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814115001)

[22] 박중명, 전자책 활성화를 위한 스낵콘텐츠 활용 연구,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 저 자 소 개

김 소 라(So-Ra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문학사)
- 2016년 2월 :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아트기획학과 (예술학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주)악어스

캔 이사

<관심분야> : 전자책, 문서전자화

김 동 언(Dong-Eon Kim)

정회원



- 1985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학사)
- 1999년 6월 : 오스트리아 린쯔대학교 문화예술미디어경영(석사)
- 2005년 9월 ~ 현재 :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아트

기획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공연·축제기획, 문화정책, 문화콘텐츠